

최종본(本)

: 마지막 순간 기본으로 돌아가다

2025_생활과 윤리_본교재

| 자료 구성

[기출 분석] 올해 6/9평의 간단한 분석과 출제 포인트를 실어놓았습니다.

[Beyond The Sense] 해당 주제의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과 논리 체계를 시각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Special] 문제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EBS 제시문과 '제작 선지 리스트'를 실어놓았습니다.

| 활용 방법

1. PDF보다는 출력해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제작 선지 리스트'는 '적중'의 관점보다는 '이런 선지가 출제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오르비 독스'와 '수능력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된 6/9평 분석 자료인 "기출의 수법" 자료를 참고하면 더욱 좋습니다. (무료 배포 중)
4. Day 1개에 본교재 10분, 복습 교재 30분, 적용 문제(N제 등) 1시간 정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습교재 7일차에는 실전 모의고사 겸용으로 작년도 6월, 9월 모의평가를 실어 놓았으니, 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도 좋습니다.)
5. 기본적으로 시중 기출 문제집 기준 2회독 이상은 했다는 전제로 자료가 구성되었습니다.

| Contents

Week 1.

Day 1. 윤리적 접근	4P
Day 2. 죽음관	9P
Day 3. 국가관	13P
Day 4. 정의관	17P
Day 5. 형벌관	21P
Day 6. 시민 불복종	24P

Week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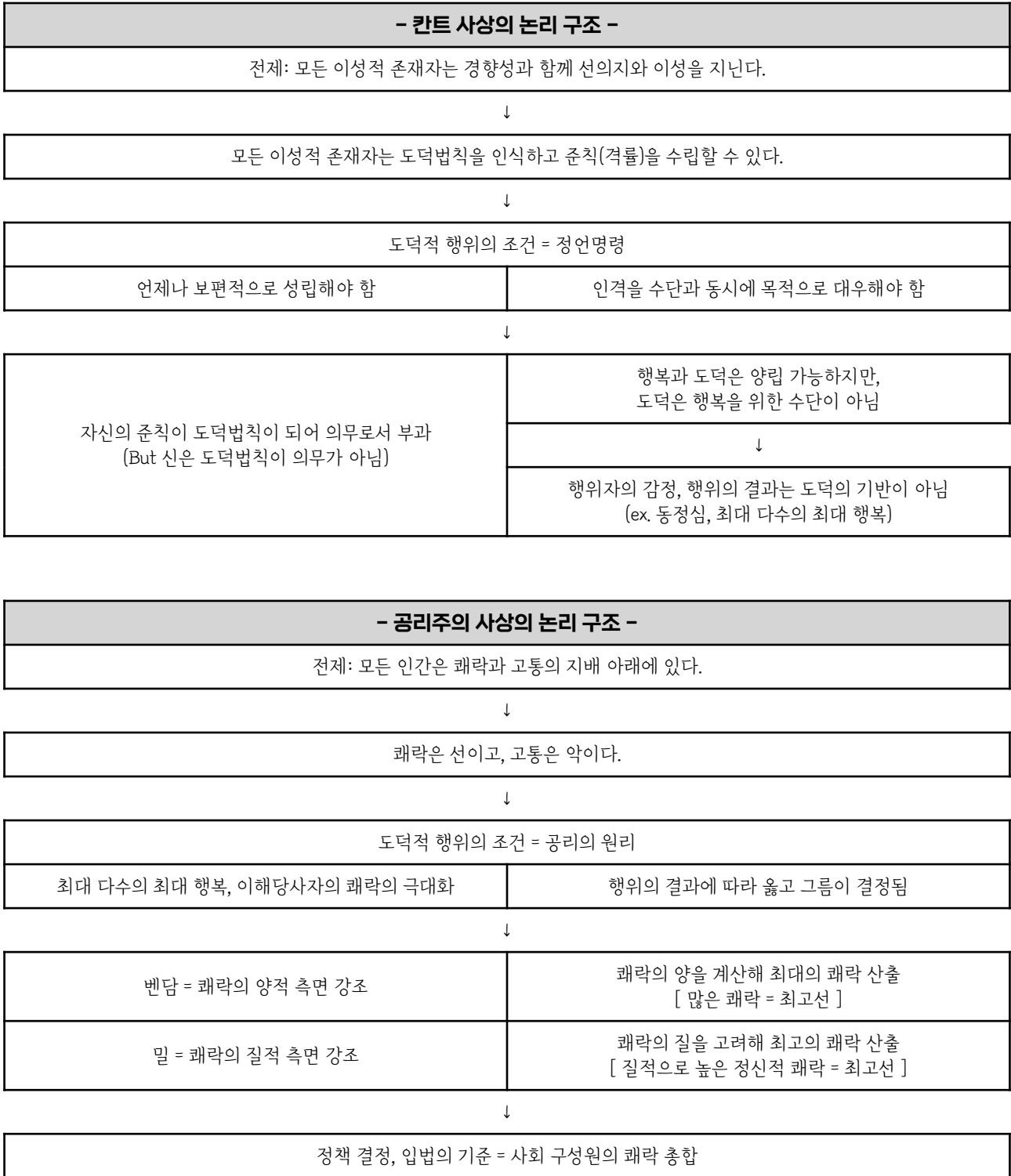
Day 1. 예술관	28P
Day 2. 기술관	31P
Day 3. 직업관	35P
Day 4. 평화관	39P
Day 5. 자연관	42P
Day 6. 해외 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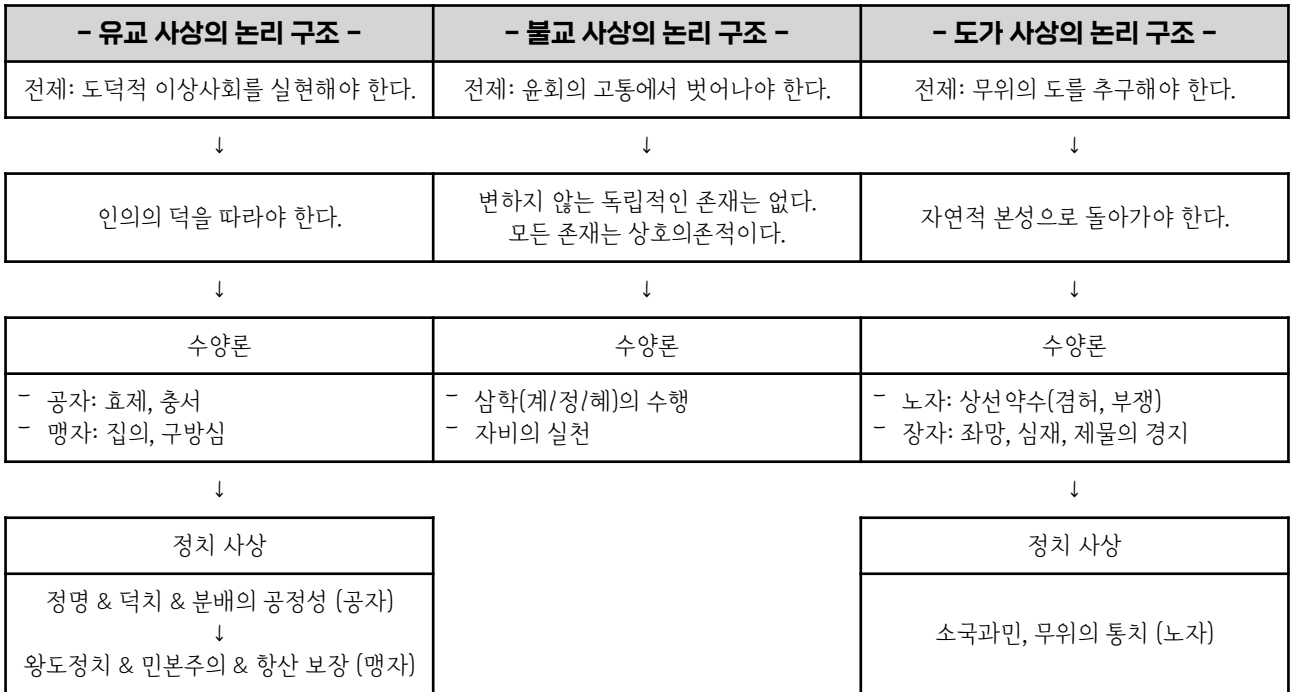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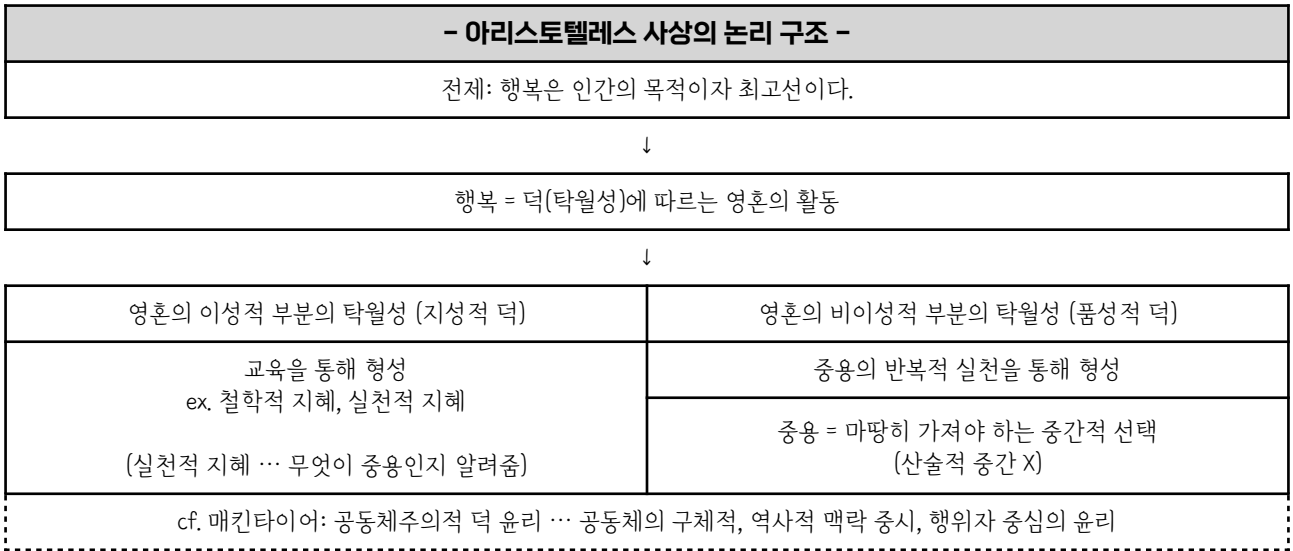
Day 1. 윤리적 접근

2025_06_#4 (정답률: 71%)	2025_09_#16 (정답률: 78%)
<p>4.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덕은 인간이 습득한 하나의 성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실천 관행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덕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한다. 핵심적 덕들이 없다면 우리는 실천 관행에 내재된 선에 접근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 상황></p> <p>학생 A는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영상 플랫폼에서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사는 결식아동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아동을 후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p> </div> <p>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하도록 행동하세요. ② 관습을 따르기보다 자율적 준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세요. ③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에 구애됨 없이 도구적 이성애 따라 행동하세요. ④ 유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하세요. ⑤ 공동선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 관념에 따라 행동하세요.</p>	<p>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갑: 사람이 되어서 인(仁)하지 못하면 예(禮)를 지킨들 무엇하겠는가?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면 음악[樂]을 한들 무엇하겠는가? 예는 사치스럽기보다 검소한 것이 낫다. 을: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으니[小國寡民] 이들은 음식을 달게 먹고 옷은 꾸밈없이 입으며 편안히 살아간다. 이웃 나라에서 닭과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평생 오고 갈 일이 없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ㄱ. 갑: 충서(忠恕)를 통한 인의 확장은 천하의 도(道)를 이루게 한다. ㄴ. 을: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을 저절로 소박하게 한다. ㄷ. 을: 무위(無爲)의 삶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ㄹ. 갑과 을: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여 도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p>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p>매킨타이어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적 덕 윤리관만 잘 알아도 굉장히 쉽게 풀었을 것이다.</p>	<p>유교 사상이 공자(갑)와 도가 사상가 노자(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2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10%인데, 아마 ㄴ의 '저절로'라는 표현에 부자연스러움을 느껴 ㄷ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오답 선지가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정답률 78%의 난이도는 절대 아니었다.</p>

서양 사상가와 동양 사상가가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꽤 자주 내비쳤던 공리주의와 칸트가 올해 출제된 바가 없으며, 2023 수능에서 '윤리적 접근'이라는 주제치고 오답률이 높았던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지 않았다. **공리주의,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그 밖의 연계 교재에 있는 제시문 또한 유의해두자.

[Beyond The Sense]





[E-Special]

ㄷ_28P_#3
<p>갑: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전쟁이 없으므로 말이 농사를 짓는 데 쓰이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전쟁이 그치지 않아 말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도는 무위하며 성인은 도 하나만을 지녀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p> <p>을: 진인은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그 시초를 모르고, 그 끝을 알려 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_노자(갑), 장자(을)</p>
<p>놀랍게도 노자와 장자를 비교하는 제시문이었다. 윤리와 사상의 수준 만큼 세밀한 구분을 묻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생활과 윤리에서도 노자와 장자의 구분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p>
ㅇ_14P_#6
<p>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된 모든 행위는 비록 이런저런 의도에는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무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의무와 상충하기조차 하므로, 그것이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일 수 있는지는 애초부터 이들 행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한 선행을 하는 일은 의무이다.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은 허영심이나 사사로운 이익 같은 다른 동인(動因) 없이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확대시키는 데서 내적 만족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만족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비록 의무에 맞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이 준칙에는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칸트</p>
<p>기초적인 수준의 칸트 사상을 묻는 제시문이다. 하지만 각 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제시문이기에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p>
ㅇ_9P_#7
<p>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에 관련해서도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올곧게 성공한다. 탁월성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이 중용은 이성에 의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할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다.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아리스토텔레스</p>
<p>23수능의 ‘아리스토텔레스 사건’으로 윤리적 접근 주제도 깊게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다. 위 제시문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만큼 출제 포인트가 많으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자.</p>
ㅇ_17P_#11
<p>갑: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든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p> <p>을: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주인이 지배하도록 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은 고통과 쾌락뿐이다. 공리의 원리는 행복한 구조를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토대이다.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_밀(갑), 벤담(을)</p>
<p>밀과 벤담을 구분하는 제시문이다. 지금까지 밀의 질적 공리주의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올해 6/9평에 공리주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만큼 ‘혹시’ 모른다.</p>

ㄹ_29P_#6

인간은 모든 사물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 또한 동물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라 남녀의 결합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향성을 가진다. 그리고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이라는 본성에 따라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며,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_아퀴나스

늘 평가원의 '통수'를 조심해야 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퀴나스 제시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있는가?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제작 선지 리스트

칸트	자신의 쾌락을 증가시키지 못하더라도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일지라도 도덕적 행위가 아닐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 의무로 부과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은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라는 동기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벤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모두 증가시킨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이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복 증대와 무관한 순수한 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참된 쾌락은 도덕과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실현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행위와 감정에는 중용이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덕한 사람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맥락을 배제한 이성의 판단에 따라 행위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자	만물을 차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예(禮)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연이 인간에게 준 도덕적 본성을 깨달아 순수하게 살아가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자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아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된다.	<input type="checkbox"/>
	무위의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작은 국가에서 이상적인 통치가 실현된다.	<input type="checkbox"/>

Day 2. 죽음관

2025_06_#11 (정답률: 86%)	2025_09_#2 (정답률: 88%)
<p>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옛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할 줄도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혼돈 상태로 있다가 변하여 기(氣)가 되고 기가 변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 삶이 되었으며 이제 또 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춘추추동의 사계절이 변갈아 윤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죽음은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원자(原子)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이 없어 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갑</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을</p> </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갑: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갑: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③ 을: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낳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 ④ 을: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⑤ 갑과 을: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p>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갑: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었는가를 깨달았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음을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正思惟] 지혜로써 통찰했다.</p> <p>을: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피하지도 않고 죽음을 기억하지도 않는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갑: 삶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輪廻)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② 갑: 삶과 죽음의 영원한 반복은 연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③ 을: 삶과 죽음은 기(氣)로 연결되어 있을 뿐 순환하지는 않는다. ④ 을: 도(道)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⑤ 갑과 을: 현재의 삶에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p>장자(갑)와 에피쿠로스(을)의 죽음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장자가 생각하는 '기의 순환'과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고통의 소멸'의 죽음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맞힐 수 있었던 무난한 난이도였다.</p>	<p>석가모니(갑)와 장자(을)의 죽음에 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어려운 선지도 없이 무난했고, 당연히 맞혀야 했던 문제이다. 포함 관계를 건드린 1번 선지만 살짝 유념해 두자.</p>

매우 쉽게 출제되었다. 당연히 수능에도 쉽게 출제될 것이다. 하지만 꽤 고난도일 수 있는 사상가인 플라톤, 특히 하이데거가 출제되지 않았다. 만약 필자가 평가원이라면 한 번 건드릴 만한 소재인 것은 분명하다. 생윤러라면 하이데거가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답률은 충분히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Beyond The Sense]

- 플라톤 죽음관의 논리 구조 -

전제: 물질과 이데아는 분리되어 있다.
[이원론적 세계관]

↓

죽음 = 영혼이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

↓

물질은 소멸하고, 영혼은 불멸함

↓

참된 진리를 인식한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음

- 에피쿠로스 죽음관의 논리 구조 -

전제: 모든 존재는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유물론적 세계관]

전제: 인간은 감각과 경험에 의해 인식한다.

↓

↓

죽음 = 모든 원자가 흩어지는 것

죽음 = 감각의 소멸, 경험할 수 없음

↓

죽음은 아무것도 아님

↓

현세의 쾌락 중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타파

- 하이데거 죽음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주체적 삶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현존재 =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인간)

↓

죽음 =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계기

↓

죽음에 대한 불안을 직시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

- 공자 죽음관의 논리 구조 -	- 석가모니 죽음관의 논리 구조 -	- 장자 죽음관의 논리 구조 -
전제: 도덕적 이상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전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제: 무위의 도를 추구해야 한다.
↓	↓	↓
죽음 = 자연적, 필연적 과정	죽음 = 연기에 의한 자연스러운 과정 [= 고통]	죽음 = 자연스러운 기의 순환 과정
↓	↓	↓
죽음보다 올바른 삶을 중시해야 함	연기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함, 궁극적으로 윤회를 벗어나야 함	삶과 죽음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야 함 [죽음에 초연]

[E-Special]

E_37P_#2, 3
<p>갑: 진인(眞人)은 삶을 즐겁다 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다 할 줄도 몰랐다.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았다. 의연히 갔다가 의연히 돌아올 뿐이다.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다가 잊어버린 채로 되돌아갔다. 본래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다. 본래 형체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기(氣)도 없었다. 그저 흐릿하고 어두운 속에 섞여 있다가 그것이 변하여 기가 되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되었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되었다.</p> <p>을: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장자), 을(에피쿠로스)</p>
6평 11번이 위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두 파트 모두 참된 진리를 인식한 사람이 죽음을 인식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E_39P_#2
<p>영혼의 사유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때는 영혼이 몸과의 소통이나 접촉을 최대한 끊고 몸과 작별하고서, 가능한 한 자신 속으로 깊이 몰려나 몰입할 때임이 분명하다. 그럴 때 영혼은 청각이나 시각이나 고통이나 즐거움 같은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의 영혼은 몸을 떨치고 몸으로부터 도망쳐서, 자신 속으로 깊이 몰려나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_플라톤</p>
플라톤의 죽음관을 언급한 제시문이다. 6/9평에서 플라톤의 죽음관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O_21P_#4
<p>현존재는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닥쳐올 때,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에 전적으로 마음을 쓰고 몰입하며, 다른 현존재와 교류할 여지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현존재의 죽음은 더 이상 현존재일 수 없다는 가능성으로 현존재의 가장 독자적이고, 몰고섭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가능성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하이데거</p>
고난도로 출제될 수 있는 하이데거의 죽음관 제시문이다. 하이데거의 죽음관 전반을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다.

○_2IP_#4

갑: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성취되어 죽음의 세계에 도착하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동시에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의 세계에서만 지혜를 보람 있게 향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을 싫어할 수 없다.

을: 지혜로운 사람은 사려 깊음을 통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서 발생하는데, 죽음이란 감각의 상실이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_갑(플라톤), 을(에피쿠로스)

최근 기출의 트렌드인 비슷한 주제를 다른 견해로 전개하는 스타일의 제시문이다. 다른 제시문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의 관점으로 알고 있어야겠다.

| 제작 선지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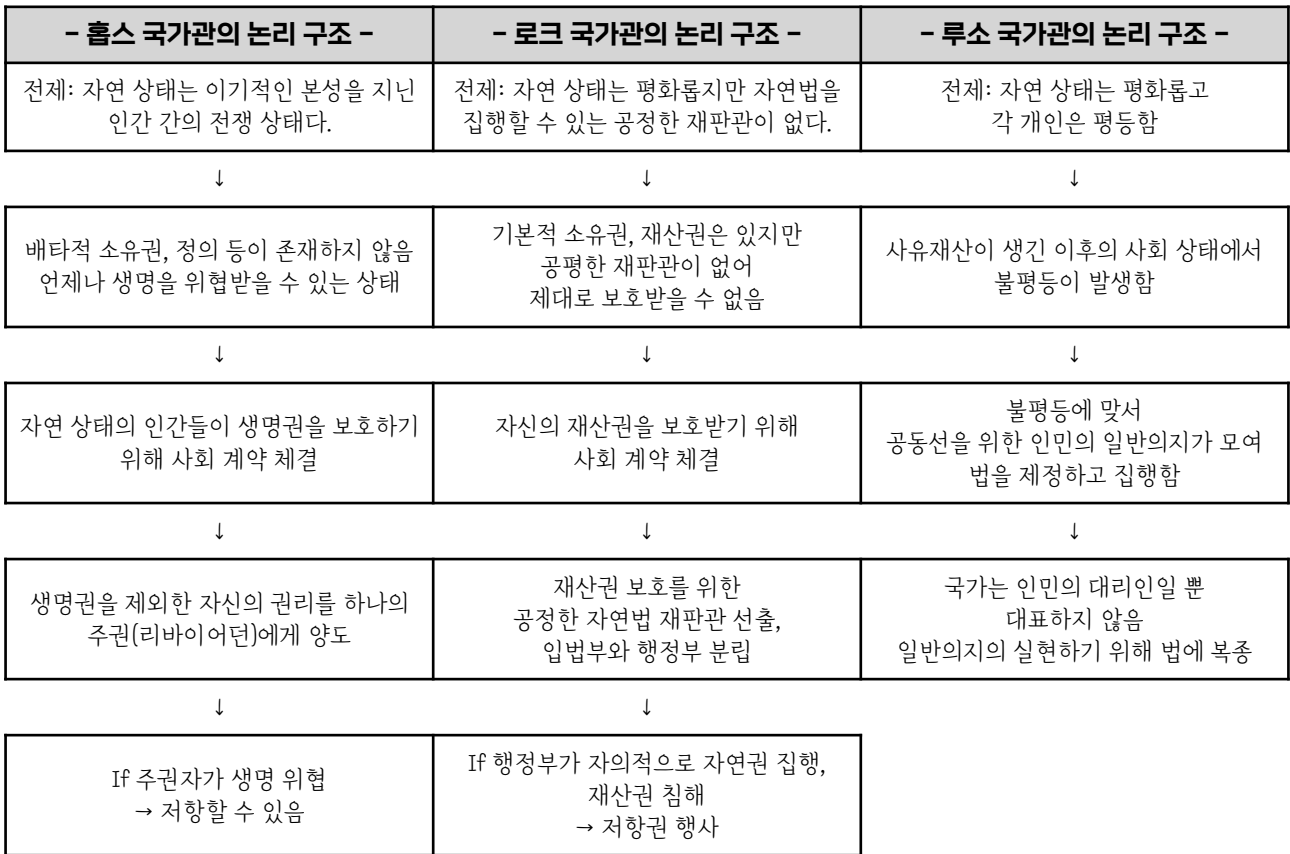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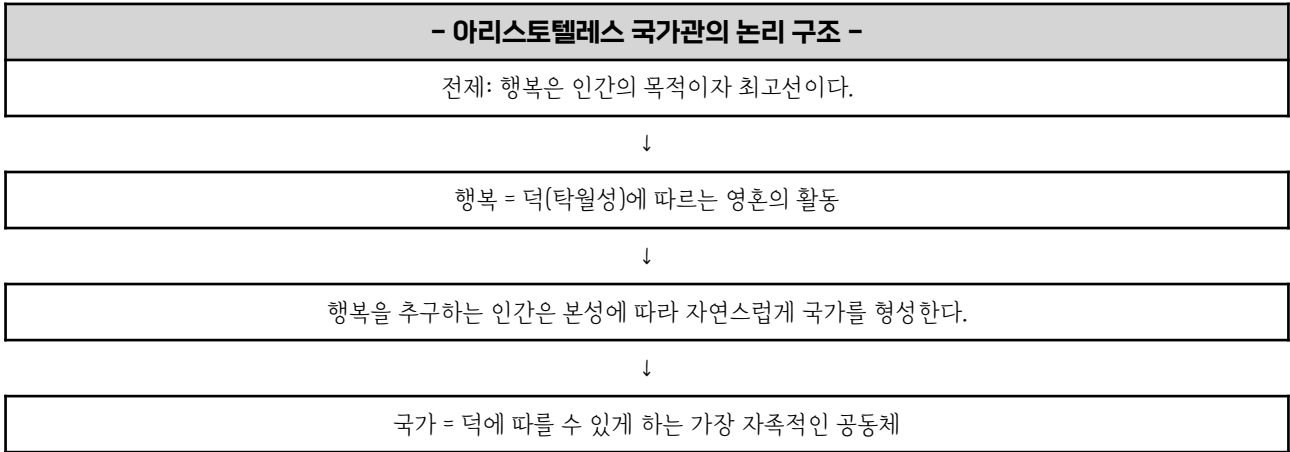
플라톤	이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영혼은 죽음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죽음은 감각의 손실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깨닫는 계기이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죽음은 영혼이 가장 잘 사유할 수 있는 사건이다.	<input type="checkbox"/>
하이데거	이성의 유무와 상관 없이 죽음을 인식할 수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죽음은 현존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현존재는 죽음을 회피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input type="checkbox"/>
	현존재는 죽음이 삶의 종착지임을 인식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공자	죽음을 통해 내면의 도덕성을 실현해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자	삶과 죽음의 관계는 선과 악의 관계이다.	<input type="checkbox"/>

Day 3. 국가관

2025_06_#7 (정답률: 86%)	2025_09_#9 (정답률: 88%)
<p>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지금 천하의 군자들이 진심으로 천하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가난해지는 것을 싫어하며,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兼愛] 서로 이롭게 해야만[交利] 한다.</p> <p>을: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일정한 생업[恒産]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恒心]을 지니지만, 일정한 생업이 없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 등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ㄱ. 갑: 군주는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p> <p>ㄴ. 갑: 군주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천하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p> <p>ㄷ. 을: 궁핍한 백성의 도덕적 이탈은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p> <p>ㄹ. 갑과 을: 군주는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한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p>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리바이어던이 없는 곳에서는 법과 정의 그리고 소유도 존재하지 않는다.</p> <p>을: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의 소유 보존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는 이를 위한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ㄱ. 갑: 절대 권력은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p> <p>ㄴ. 갑: 인간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p> <p>ㄷ.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p> <p>ㄹ. 갑과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p>
<p>목가 사상가 목자(갑)와 유교 사상가 맹자(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문제는 쉬웠지만 윤리 과목에서 목자를 본격적으로 묻고 있으며, 맹자 혹은 공자와의 차별적 입장을 중심으로 잘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p>	<p>홉스(갑)와 로크(을)의 국가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사회계약설의 입장에서 국가를 설명한 두 사상가의 기본적 도식을 잘 알고 있어야 했고, ㄹ 선지를 판독하기 위해 두 사상가가 보는 자연 상태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했다.</p>

주로 서양 사상가로 사회계약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는 동양에서는 맹자, 공자나 노자가 언급되는 국가관 주제에서 6평에 뜬금없이 목자가 출현했다. 역시나 고난도 카드를 아껴 놓는 것일 수도 있지만, 9평에 사회계약설 사상가가 나왔기 때문에 막상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만약의 만약까지 대비해야 하는 법이다. 역대 기출에 자주 출제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사회계약설**을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하자.

[Beyond The Sense]



[E-Special]

ㄷ_90P_#4
<p>갑: 군주는 덕행(德行)으로 정사(政事)를 주관해야 한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이런 까닭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된다.</p> <p>을: 군주는 하늘의 뜻에 따라 남의 나라를 위하기를 자신의 나라를 위하는 것같이 해야 한다. 천하가 모두 아울러 서로 사랑[兼愛]하게 되면 곧 다스려지고, 모두가 미워하면 곧 어지러워진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맹자), 을(장자)</p>
6평 7번이 위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두 파트 모두 군주가 해야 할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ㄷ_145P_#3
<p>갑: 각각의 인간들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사회에 양도하여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이다.</p> <p>을: 각각의 인간들은 서로 간의 계약을 통해 자신을 통치하는 권리를 하나의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가가 그들 모두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대적 권력과 힘을 부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로크), 을(홉스)</p>
9평 9번이 위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두 파트 모두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사회 계약을 맺게 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ㄷ_90P_#1
<p>갑: 덕(德)으로써 어진 정치를 베푸는 것이 왕도(王道)이다. 정치를 실행할 때에는 덕(德)을 지닌 현자가 합당한 지위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합당한 직책에 있게 해야 한다.</p> <p>을: 현명한 군주는 군신 사이에 혈육 간의 친밀함이 없음을 잘 알아서 이익과 해(害)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 천하에 제시할 뿐이다. 정치를 실행할 때에는 명확한 법을 설정하고 엄격한 형벌을 제시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맹자), 을(한비자)</p>
특이하게도 한비자가 출제된 제시문이다. 동양 사상가가 이미 출제되었지만 ‘혹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는 한비자 제시문도 눈에 익어야 한다.
○_57P_#2
<p>우리는 모든 국가가 어떤 종류의 공동체이고,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善]을 위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관찰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좋음이라고 여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good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공동체 중에서 최고의 것이면서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이 공동체는 가장 으뜸가는, 다시 말해 모든 좋음 중에서 최고의 good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국가라고 불리는, 즉 국가적 삶을 형성하는 공동체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아리스토텔레스</p>
아리스토텔레스 제시문이야말로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연히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_59P_#6
<p>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체에 맡겨 개인의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인다. 이 연합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각계약자의 개인적 권리는 사라지며, 그 대신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구성된 정신적이고도 집합적인 단체를 이룬다.</p> <p style="text-align: right;">_루소</p>
사회계약설 사상이 중 출제되지 않은 루소의 제시문이다. 다른 주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상가인 루소지만, 국가관 주제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 제작 선지 리스트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형성한다.	<input type="checkbox"/>
	시민의 좋음과 국가의 좋음은 서로 무관하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는 본성상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	<input type="checkbox"/>
	좋음과 나쁨의 인식에서 국가가 생성된다.	<input type="checkbox"/>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홉스	자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input type="checkbox"/>
	절대 권력은 개인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사회 계약은 각 개인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국가 구성원은 주권자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로크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속에서 인간은 정치 권력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루소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 보장에 필수적이다.	<input type="checkbox"/>
	국가의 주권은 행정부에 의해 대표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Day 4. 정의관

2025_06_#15 (정답률: 16%)	2025_09_#9 (정답률: 88%)
<p>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갑: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각자는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p> <p>을: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ㄱ. 갑: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ㄴ. 갑: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ㄷ. 을: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선 안 된다. ㄹ. 갑과 을: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p>	<p>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가) 갑: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최초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원칙이다. 우연적 사실들에 관한 지식을 배제한 조건에서 합의한 원칙은 정의로운 것이다. 을: 소유 권리론은 취득, 이전(移轉) 및 교정 과정을 주제로 삼는다. 그 역할이 개인의 소유 권리 보호에 국한된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국가이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나) </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ㄱ. A: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ㄴ. B: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ㄷ. C: 최소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가? ㄹ. C: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p>롤스(갑)와 노직(을)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당시 오답률 1위(84%)였으며, 롤스와 노직의 정의관을 세부적으로 알기 보다는, ‘절차적 정의’라는 큰 틀에서 각 사상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다.</p>	<p>롤스(갑)와 노직(을)의 정의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률은 다른 문제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1번과 3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14%로 꽤 높다. ㄱ, ㄷ, ㄹ 선지가 모두 헛갈렸다는 의미로, 순서도 유형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했다.</p>

역시 생운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맥스. 6/9평 둘 다 롤스와 노직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특히 6평은 정답률 16%(!!)의 위엄을 토해냈다. 무슨 말이 필요한가. 당연히 **롤스, 노직**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간 기출에는 특히 정의의 원칙 또는 사회적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에 대한 선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Beyond The Sense]

- 롤스 정의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정의는 절차의 공정함이다.

↓

공정한 절차(정의의 원칙)는 원초적 상황에서 도출된다.	정의의 원칙 01.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모두 최대한 누려야 한다. 단,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절충될 수 있다.
원초적 상황 (무지의 베일) = 상호 무관심한 개인이 합리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상황	정의의 원칙 02. 사회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의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 03. 사회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된다. (→ 자연적 우연성의 분포는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

국가는 시장 체제를 구비하면서 소수의 통제를 방지해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해야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

- 노직 정의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정의는 소유 권리의 정당함이다.

↓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 (역사적이고, 비정형화된 정의)	정의의 원칙 01. 정당한 노동을 통해 취득한 재화는 그 사람에게 소유 권리가 있다.
	정의의 원칙 02.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는 그 사람에게 소유 권리가 있다.
	정의의 원칙 03. 재화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를 교정해야 한다.

↓

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 등 반대)

[E-Special]

○_49P_#3
<p>갑: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p> <p>을: 분배에서의 정의의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대조적으로 정의의 현재 시간 단면 원리에 따르면, 분배의 정의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유일한 것은 결국 누가 무엇을 갖게 되는가의 문제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롤스), 을(노직)</p>
<p>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잘 다룬 제시문이다. 제시문 연계보다는 선지 연계에 집중해서 문장 표현 하나하나 유심히 보자.</p>
○_50P_#5
<p>갑: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p> <p>을: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은 첫째, 강압·절도·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 집행 등 좁은 기능에 제한된 최소 국가는 정당화되며, 둘째,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한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고, 셋째, 최소 국가는 옳을 뿐만 아니라 유평의에 대한 영감을 고취시킨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롤스), 을(노직)</p>
<p>롤스와 노직의 국가에 대한 입장을 다룬 제시문이다. 선지로는 훌륭한 소재들이 산재해 있다.</p>
ㄷ_79P_#5
<p>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차이는 사회적 가치 그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가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왈처</p>
<p>‘의외의’ 상황에 대비한 왈처 제시문이다. 비록 롤스, 노직을 제끼고 출제될 지는 모르겠지만…….</p>
○_50P_#6
<p>부분적인 정의와 그 정의에 따라 정의로운 것의 한 종류는 명예나 돈, 혹은 정치 체제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의 분배에서 성립한다. 이러한 분배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지 않은 몫을 가질 수도 있고 동등한 몫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종류는 상호 교섭에서 성립하는 교정적 정의이다. 이것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상호 교섭의 한 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다른 한 부분은 비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아리스토텔레스</p>
<p>그래도 왈처보다는 출제 확률이 높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제시문이다. 롤스, 노직과 함께 갑, 을, 병으로 출제될 수 있다.</p>

| 제작 선지 리스트

롤스	원초적 상태의 개인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 무지하다.	X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없으면 분배는 균등해야 한다.	□
	재능과 재산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인정해야 한다.	X
	정의의 원칙은 문화적 원시 상태에서 모두가 합의한 것이다.	X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는 것을 허용될 수 있다.	□
노직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국가가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	X
	국가의 과세 정책은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X
	정의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정의의 원칙은 비역사적 상황에서 합의되는 것이 아니다.	□
	사회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과세 정책은 허용될 수 있다.	X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와 상호 교섭에서 정의로운 것은 동등한 것이다.	□
	부정의함을 바로잡을 때 당사자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	□
	교정적 정의는 자발적, 비자발적 교섭에서 모두 성립할 수 있다.	□

Day 5. 형벌관

2025_06_#19 (정답률: 61%)	2025_09_#15 (정답률: 73%)
<p>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가)</p> <p>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p> <p>을: 시민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처분하기보다 보존하려고 궁리한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p> <p>병: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사형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인도주의의 대의를 선취하고자 한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나)</p> </div> <p>① A와 F: 살인자는 시민 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음을 간파한다. ② B: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간파한다. ③ C: 사회 계약에 근거해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간파한다. ④ D: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을 간파한다. ⑤ E: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파한다.</p>	<p>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가)</p> <p>갑: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종신 노역형은 단지 한 범죄자만 있어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p> <p>을: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보 기></p> <p>ㄱ. A: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ㄴ. B: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한다. ㄷ. B: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ㄹ. C: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p>칸트(갑), 루소(을), 베카리아(병)의 형벌에 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60%대 정답률로 그리 쉽지도, 어렵지도 않았으며, 루소의 사회 계약설에 대해 정확히 알았으면 4번 선지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p>	<p>베카리아(갑)와 칸트(을)의 형벌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생활과 윤리에 자주 출제되는 3원 밴다이어그램보다 순한 맛이며, 무난한 난이도였다. 밴다이어그램 유형의 특이성만 잘 기억하자.</p>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형벌관을 잘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주제로, 세 사상가 모두 중요도의 차이가 미미하다. (그만큼 모두 중요하다는 얘기다!) 세 사상가가 형벌, 특히 사형을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하자.

[Beyond The Sense]

- 칸트 형벌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처벌의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처벌 그 자체의 목적)	

↓

범죄 행위에 상응(비례)하는 동해 보복법이 필요함	법률은 하나의 정언 명령, 형벌은 범죄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
-----------------------------	--------------------------------------------

↓

↓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와 동등하게 사형에 처해야 함	사형은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 (살인자의 사회적 인격성은 이미 X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
-----------------------------	-------------------------------------------------------------------

- 루소 형벌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처벌의 이유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수단으로서의 처벌)	

↓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자연권(생명권, 재산권 등)의 보호를 위해 사회 계약을 체결함, 자신의 모든 것을 양도

↓

국가에 소속된 개인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이는 국가 안정에 대한 위협 (살인자 = 공공의 적)

↓

국가는 '공공의 적'을 국가로부터 추방하거나 사형시킬 수 있음 (For 국민의 생명권)

- 베카리아 형벌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처벌의 이유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이다. (수단으로서의 처벌)	

↓

형벌의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더 범죄 예방 효과가 큼	개인은 사회 계약을 체결할 때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음
------------------------------	----------------------------------

↓

↓

강도가 큰 사형보다 지속성이 큰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임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음,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에 의해 사형은 부당함
----------------------------------	---------------------------------------------------

[E-Special]

E_83P_#7	
<p>갑: 법정에서는 오직 접시저울에서와 같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정언 명령으로 주어진다.</p> <p>을: 살인자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기보다 오로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궁리한다.</p> <p>병: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자신의 생명권을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할 수 없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일 뿐이다.</p>	<p>_갑(칸트), 을(루소), 병(베카리아)</p>
<p>9평 15번이 위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세 사상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 유심히 보도록 하자.</p>	
O_79P_#6	
<p>갑: 형벌은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그만큼 크기의 면에서 그 이상으로 가중되어야 한다. 형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p> <p>을: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형벌은 사회 계약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p>	<p>_갑(벤담), 을(베카리아)</p>
<p>형벌관 주제에서 칸트, 루소, 베카리아 외에 나올 수 있는 사상가인 벤담의 형벌관 제시문이다. 물론 벤담과 같은 윤리관이 뚜렷한 사상가는 확 티가 날 것이다.</p>	

| 제작 선지 리스트

칸트	살인범의 생득적 인격성은 그가 범죄 예방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input type="checkbox"/>
	사형은 공적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국가의 안전을 위해 형벌이 필요하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루소	사형은 주권자가 위임할 수 없는 권리이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민을 살해한 자는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사형은 살인자가 시민의 자격을 잃었다는 공적 선포이다.	<input type="checkbox"/>
베카리아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에 의해 국가에 의한 사형은 성립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에 목적에서 우선한다.	<input type="checkbox"/>
	사형을 규정한 법률은 사회 계약에 위반된다.	<input type="checkbox"/>
벤담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므로 형벌을 통해 예방되는 해악보다 항상 크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Day 6. 시민 불복종

2025_06_#14 (정답률: 46%)	2025_09_#12 (정답률: 73%)
<p>14.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p> <div data-bbox="188 533 770 835"> <p>(가)</p> <p>갑: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p> <p>을: 공리의 관점에서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p> <p>병: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법이 독단에 치우쳐 있다면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188 835 770 1111"> <p>(나)</p> </div> <div data-bbox="188 1149 770 1413"> <p><보 기></p> <p>ㄱ. A: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p> <p>ㄴ. B: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p> <p>ㄷ. C: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은가?</p> <p>ㄹ. D: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하는가?</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p>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p> <div data-bbox="834 533 1422 707"> <p>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 불복종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 자유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합당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뜻한다.</p> </div> <div data-bbox="834 730 1422 958"> <p><보 기></p> <p>ㄱ. 국가의 처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p> <p>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p> <p>ㄷ.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p> <p>ㄹ.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전제하므로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p>롤스(갑), 싱어(을), 소로(병)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순서도 유형이라 다소 정답 판정 과정이 복잡했지만, 각 사상가의 기본 입장만 알았어도 정답은 맞힐 수 있었을 것이다.</p>	<p>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이번 9평은 이상하리만치 전통적인 고난도 주제가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는데, 이 문제 또한 그렇다. 아마 무난하게 3번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p>

전통적인 고난도 주제였지만 9평 12번이 쉽게 나왔다. 또한 소로에 대한 제시문도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되었고, 정답률도 낮았다. 하지만 6평에서는 정답률 46%라는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어 고난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롤스, 싱어의 입장**을 중심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자.

[Beyond The Sense]

- 롤스 시민 불복종의 논리 구조 -

전제: 정의는 절차의 공정함이다.



정의의 원칙에 의해 헌법이 제정된 체제는 정의롭지만,
일부 법은 정의롭지 않을 수 있음



정의의 원칙, 공유된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은 불복종의 대상
(체제 변혁, 정의의 원칙 자체, 차등의 원칙을 위배한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가 아닌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능함

- 싱어 시민 불복종의 논리 구조 -

전제: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실현하여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공리주의적 접근)



합법적 절차를 따르더라도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은 불복종의 대상
(다수가 합의하거나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더라도)



시민 불복종으로 초래되는 손해와 이익을 계산
(중단되어야 하는 악의 크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감소 가능성을 고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는 것

[E-Special]

ㄷ_95P_#7
<p>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정치적 행위이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p> <p>을: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유일한 의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롤스), 을(소로)</p>
<p>6평 14번이 위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특히 소로 제시문을 진하게 연계한 것으로 보아, 조금 낯선 사상가의 제시문 또한 연계 준비를 착실해 해야 할 것이다.</p>
ㄷ_83P_#7
<p>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규정된다. 시민 불복종의 이론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히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것은 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과 민주 체제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함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롤스</p>
<p>9평 12번이 위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롤스의 시민 불복종 사상 키워드가 잘 나오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해보면 롤스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p>
ㅇ_129P_#12
<p>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예비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p>
<p>롤스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는 원리에 대한 제시문이다. 제시문 뿐만 아니라 선지로서도 매우 좋은 소재들이 들어있으므로,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해보자.</p>

| 제작 선지 리스트

룰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경고이자 위협이다.	X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옳은 방식이다.	□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정의로운 체제가 침해되는 무질서를 고려해야 한다.	□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X
	차등의 원칙을 위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	□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여부가 결정된다.	□
심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을 기반으로 처벌까지 저항해야 한다.	X
	불법적인 수단이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시민 불복종이 모든 국가에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시민 불복종은 다수에게 부정의한 법을 알리려는 시도지만 강요될 수 없다.	□
소로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도된다.	X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개인적 정의관에 귀결된다.	□

Day 1. 예술관

2025_09_#17 (정답률: 91%)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추함, 나쁜 리듬,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우아함과 고상함은 절제 있고 좋은 성품을 닮은 것이다. 우리는 시인들로 하여금 좋은 성품의 상(像)을 시에 새겨 넣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의 성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인들을 찾아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도록 해야 한다.

- ① 예술은 도덕의 영역 밖에 있는 예술가들의 독자적 활동이어야 한다.
- ② 예술 작품에 도덕적 가치가 반영되었는지는 대중이 결정해야 한다.
- ③ 예술은 보편적 진리의 기준과 무관한 순수한 창작 활동이어야 한다.
- ④ 예술에 대한 검열은 예술의 우아함을 훼손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 ⑤ 예술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참된 아름다움에 동화되도록 해야 한다.

플라톤의 예술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쿨타임’이 돈만큼 오랜만에 서양 사상가의 예술관 주제가 출제되었지만, 난이도는 매우 쉬웠다. 혹여나 낯설게 느껴졌다면 실전에서는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후적으로는 EBS 교재의 해당 주제를 한번 훑어보는 것이 좋다.

‘개뜬금’으로 예술관 주제가 9평에 출제되었다. 그것도 공자, 묵자와 같은 동양 사상가도 아니고, 단골 문제인 아도르노도 아니고 플라톤이. 원래라면 비주류 출제 파트라서 그냥 넘어갈 법도 하지만 하필 서양 사상가의 예술관이 등장하여 ‘혹시?’하는 마음에 준비해 보았다. (심지어 비연계였다.) **심미주의적 예술관과 도덕주의적 예술관의 구분**을 중심으로 특히 E-Special 제시문을 꼼꼼히 보도록 하자.

(워낙 마이너한 파트라 논리 구조 요약은 생략하겠다.)

[E-Special]

ㄷ_135P_#2
<p>시가 도덕적이거나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우리는 맞지도 않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실험하려는 어리석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저녁 식탁에서의 이러한 대화를 상상해 보라. “이 배추가 국제법에 따라 재배되었다면 훌륭한 텐데.” 혹은 “당신은 왜 내 파이가 맛있는지 아십니까? 파이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p> <p style="text-align: right;">_스핑겐</p>
<p>‘예술은 도덕과 무관하다’는 <u>심미주의적</u> 입장의 스펡겐 제시문이다. 확실히 낯설다. 그만큼 더 숙지할 필요가 있다.</p>
ㄷ_136P_#5
<p>미적인 것은 도덕적 선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미적인 것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그들이 지닌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칸트</p>
<p>‘예술과 도덕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u>도덕주의적</u> 입장의 칸트 제시문이다. 칸트의 예술관이 교육과정 내에서 잘 서술되어 있어 참고할 만 하다.</p>
ㄷ_136P_#8
<p>모든 인간은 모방에 의한 재현에 쾌감을 느낀다. 실물을 보기에 괴로운 존재들도 정확하게 그린 그림으로 보면 좋아한다. 철학자가 배우면서 느끼는 살아 있는 쾌감을 다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라봄으로써 배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은 자연이 성공시키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_아리스토텔레스</p>
<p>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에 대한 제시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u>도덕주의적</u> 입장을 취하고 있다.</p>
ㄷ_137P_#1
<p>갑: 아름다운 음악에서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로 파고 들어가서 우아함을 심어 주고, 올바른 자에게는 우아함을, 올바르지 못한 자에게는 추악함을 알게 해 줄 수 있다.</p> <p>을: 아름다운 사물은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름다운 것에서 추악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며,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플라톤), 을(와일드)</p>
<p>도덕주의적 입장의 플라톤, 심미주의적 입장의 와일드에 대한 제시문이다. 점점 도덕주의와 심미주의에 대해 갑이 잡힐 것이다.</p>
ㅇ_88P_#4
<p>우리는 맑은 공기, 따사로운 햇살, 깨끗한 물, 안락한 집으로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 줄지언정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안겨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예술이 필요하다. 예술은 사실적인 것에 철저히 무관심하다. 예술은 창조하고, 상상하고, 꿈을 꾸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절대적인 장벽을 드리운다. 대신 그 장벽을 아름다운 장식과 이상으로 꾸민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그 완벽함을 추구할 뿐이지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_와일드</p>
<p>와일드의 예술관에 대한 제시문이다. 이 정도면 예술관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사상가는 모두 접한 것이다.</p>

| 제작 선지 리스트

플라톤	예술가는 선악의 개념에 초연한 존재이다.	X
	예술가는 철학자의 도덕적 이상향을 모방해야 한다.	□
	국가는 예술 작품을 도덕적인 방향으로 선도해야 한다.	□
스핑크	예술은 미적 행위이지만 선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예술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통념과 연관 지으면 안 된다.	□
	예술가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성인의 한 부류이다.	X
와일드	예술의 가치는 예술 그 자체에 있다.	□
	예술은 지성이나 감성이 아닌 인간의 예술적 기질에 호소하는 것이다.	□
칸트	미적인 것과 선한 것은 서로 독립적인 영역이 없다.	X
	미적 체험과 도덕적 체험은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
	예술에서 비롯된 즐거움은 인간을 감정에 구속시키지 않는다.	□
아리스토텔레스	예술은 자연을 통해 모방될 수 있다.	□
	예술은 자연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목표로 한다.	□

Day 2. 기술관

2025_06_#5 (정답률: 59%)	2025_09_#8 (정답률: 72%)
<p>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어 있다.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기술의 본질이 갖는 영역 중 그동안 망각되었던 진리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린다.</p> <p>을: 기술은 그 자체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러나 기술은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 기술의 선용과 악용은 인간 속에 들어 있는 다른 근원들에서 나오는 것이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ㄱ. 갑: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p> <p>ㄴ. 갑: 기술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 주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p> <p>ㄷ. 을: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중립적이다.</p> <p>ㄹ. 갑과 을: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p>	<p>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새로운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또는 다음과 같다. “미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욕의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의 선택에 포함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도 있다.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위협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에게는 현 세대의 존재를 위해 미래 세대를 감히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p> </div> <p>①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 ②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호혜적이다. ③ 발생하지 않은 사태는 윤리적 고려와 예측의 대상이 아니다. ④ 책임 윤리는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는 현 세대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킨다.</p>
<p>하이데거(갑)과 야스퍼스(을)의 기술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하이데거는 기술 자체에 대한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고, 야스퍼스는 인정하는 입장을 알고 있었다면 풀 만 했을 것이지만, 두 사상가 모두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는 가치 중립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p>	<p>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얼마든지 복잡하게 선지를 만들 수 있는 주제지만, 2번 선지의 ‘호혜적’이라는 어휘를 모르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p>

6평에는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기술 중립성 논쟁, 9평에는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출제되었다. 의외로 6평 5번이 정답률이 낮았는데,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 두 사상가의 입장이 같다는 점은 알았어야 했다. 수능에도 **기술 중립성 논쟁, 또는 요나스의 책임 윤리** 중 하나는 무조건 출제될 것이므로 잘 챙겨 놓도록 하자.

[Beyond The Sense]

- 야스퍼스 기술관의 논리 구조 -

전제: 기술은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다.



기술 자체는 선, 악이 없는 불가치적 개념
(기술의 가치 중립성 인정)



기술의 활용을 통해 인간의 주체적 능력을 실현해야 함
(기술의 활용 측면의 가치 개입 인정)

- 하이데거 기술관의 논리 구조 -

전제: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탈은폐의 과정)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볼 때 인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짐 (기술에 종속)
(기술의 가치 중립성 부정)



기술의 활용에 있어 '도구적 이성'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
(기술의 활용 측면의 가치 개입 인정)

- 요나스 책임 윤리의 논리 구조 -

전제: 기술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
(윤리적 공백 상태)



현 세대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존재



현 세대의 행위로 미래 세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를 기반으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함
(공포의 발견술)



인간의 행위가 미래 세대의 존재와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

[E-Special]

E_103P_#3
<p>갑: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라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현대의 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탈은폐는 도발적 요청이라는 의미의 '뉘아세움'의 성격을 띤다. 이 도발적 요청은 자연의 에너지를 채굴하고 변형시키며, 저장하고 분배하며, 이를 다시 한번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p> <p>을: 어떻게 분명한 것은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가이며, 기술이 인간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인간이 기술을 어떤 조건 아래 놓는가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하이데거), 을(야스퍼스)</p>
6평 5번이 위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기술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보여준다.
E_105P_#7
<p>갑: 인류 자체의 권력과 지배권을 우주 전체에 대해 수립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야망은 더할 나위 없이 건전하고 고귀한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신께서 선물로 주신 자연에 대한 인류의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성과 진실된 신앙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p> <p>을: 우리는 기술적인 것을 그저 기술적으로, 다시 말해 인간과 그가 만든 기계들에서 표상하려는 자 세를 멀리해야 한다. 현대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행위도 아니고 더구나 그런 행위 안에서의 단순 한 수단도 아니다. 기술을 그저 도구적으로 또는 인간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베이컨), 을(하이데거)</p>
특이하게 베이컨과 하이데거를 묶은 제시문 세트이다. 베이컨은 진한 과학 기술 지향주의자라는 것을 알아두자.
O_67P_#7
<p>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는 선의 인식보다 더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우리에게 반성을 인식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윤리학은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다. 내가 주장하는 새로운 윤리학은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 윤리와 달리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 관련이 없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실존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_요나스</p>
9평 8번이 위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주로 공포의 발견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제작 선지 리스트

야스퍼스	기술의 활용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하이데거	기술의 본질을 인간을 위한 도구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학 기술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요나스	과학 기술은 그 영향력에 비례하여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진다.	<input type="checkbox"/>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 검토로써 인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학 기술은 인간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	<input type="checkbox"/>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와 책임의 대상은 항상 같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Day 3. 직업관

2025_06_#16 (정답률: 80%)	2025_09_#13 (정답률: 89%)
<p>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선왕(先王)은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했는데 존귀함과 비천함, 어른과 아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능력 있고 능력 없는 자를 구분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일을 맡겨 자신에게 합당한 일을 갖게 하였다.</p> <p>을: 신은 우리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소명(召命)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신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를 지정해 주었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ㄱ. 갑: 직업의 배분에서 개인의 자질을 분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p> <p>ㄴ. 갑: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예의를 실천하는 일이다.</p> <p>ㄷ. 을: 신이 각자에게 부여한 소명에 따라 직업에 귀천이 생긴다.</p> <p>ㄹ. 갑과 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부를 쌓아야 한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p>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생산자가 자신의 소질에 맞지 않는데도 수호자의 일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국가에 과멸을 초래하게 된다.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올바름이므로, 각자는 자기 역할에 맞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p> <p>을: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풍년에 배부르고 흉년에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 연후에야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p> </div> <p>① 갑: 시민의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갑: 생산자와 수호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급자족해야 한다. ③ 을: 다스림의 근본은 의로움[義]보다 이로움[利]에 두어야 한다. ④ 을: 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인격 수양의 조건이 될 수 있다. ⑤ 갑과 을: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에 따라 역할 교환이 가능하다.</p>
<p>순자(갑)와 칼뱅(을)의 직업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사상가만 확인했다면 선지에서는 판별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p>	<p>플라톤(갑)과 맹자(을)의 직업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당연히 맞혀야 했던 문제이고, 2번 선지의 '자급자족'이라는 어휘에는 주의할 것을 유념하자.</p>

6, 9평 모두 매우 무난한 문제로 출제되었다. 다만 거슬리는 것은 9평 13번의 '자급자족'이라는 어휘인데, 생윤 특유의 말장난이 다시 생긴 듯한 느낌이 들고, '역할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고난도 선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듯하다. 그 외에는 무난할 것이다.

[Beyond The Sense]

- 맹자 직업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직분에 충실하며 덕을 실천해야 한다.



덕에 따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구분
(상호 보완적 관계)



고정적 생업을 통한 생계 유지는 궁극적으로 도덕적 마음의 기반 (향산의 보장)
*선비는 향산 없이도 향심을 유지할 수 있음

- 순자 직업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직분에 충실하며 덕을 실천해야 한다.



예에 따라 사회적 역할 분배
(각자의 적성/능력 고려)



예에 따라 서로의 역할 교환 가능
(사대부라도 서인이 될 수 있고, 서인이라도 사대부가 될 수 있음)

- 플라톤 직업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직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타고난 소질에 따라 나뉜 계급에 맞는 덕을 실현해야 함
(통치자 - 지혜, 용기, 절제 / 방위자 - 용기, 절제 / 생산자 - 절제)



각 계급은 서로 반목하거나 직업을 교환하지 않음
(직업 선택의 자유 X)

- 칼뱅 직업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직업을 통해 신의 영광을 실현해야 한다.



직업은 신의 소명, 우열이나 귀천이 없음
(직업 선택의 자유 X)



근면한 생활을 통한 직업적 성공 긍정

[E-Special]

ㄷ_66P_#1
<p>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귀함과 천함의 등급을 분별하게 하였다.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士)의 덕은 반드시 그들의 지위에 어울려야 하고, 그들의 지위는 반드시 그들이 받는 녹에 어울려야 하며, 그들의 녹은 반드시 그들의 쓰임에 어울려야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_순자</p>
ㄷ_66P_#1
<p>신은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신이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_칼뱅</p>
6평 16번이 위의 두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ㅇ_133P_#7
<p>갑: 임금 은 신하 부리기를 예(禮)로써 하고, 신하는 임금 섬기기를 충(忠)으로써 해야 한다. 부유하고 귀한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도(道)로써 얻지 않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군자가 인(仁)을 버리면 어떻게 이름[名]을 이루겠는가?</p> <p>을: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나라를 장악하기 전에는 시민이나 나라에서도 악과 불행이라는 나쁜 일의 종식은 없을 것이며, 정의로운 정체(政體) 또한 그 완성을 볼 수 없다. 국가는 수호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공자), 을(플라톤)</p>
9평 13번이 위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ㄷ_69P_#3
<p>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다. 즉, 노동자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타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삶을 생활 수단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 소외된 노동은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다. 이러한 소외의 근본 원인은 결국 사적 소유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마르크스</p>
마르크스가 정의관 주제에서 올해 출제되지 않았다면, 직업관 주제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그 내용은 비슷하다.
ㅇ_44P_#7
<p>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과 신뢰의 규범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연고, 즉 가족, 지인과 비공식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시민 협의체, 종교 기관, 자원봉사 활동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적 품성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공동체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기회주의적 처신과 부정행위를 할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_퍼트남</p>
어느 순간 연계 교재에서는 나오면서 출제가 안 되는 사상가인 퍼트남 또한 직업관 주제에서 슬슬 나올 때도 됐다. 내용은 쉬우니 기시감 정도만 남겨 놓자.

| 제작 선지 리스트

맹자	백성들이 떳떳한 직업을 가져야 도덕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input type="checkbox"/>
	선비는 일반 백성들과 달리 향산이 없어도 향심을 유지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순자	군자와 달리 소인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input type="checkbox"/>
	덕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예는 사람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하게 해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플라톤	직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간 역할 교환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칼뱅	직업적 성공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의 축적과 신의 소명 실현은 양립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퍼트남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 청렴성이 제고된다.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자본은 사회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 축적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Day 4. 평화관

2025_06_#10 (정답률: 54%)	2025_09_#18 (정답률: 46%)
<p>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형성하고,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반면, 어떤 종류의 평화라도 또 다른 평화를 낳는다.</p> <p>을: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ㄱ. 갑: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ㄴ. 갑: 구조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술도 있다. ㄷ. 을: 강제력을 갖춘 평화 조약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정치 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p>	<p>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국제 정치는 자국의 국력을 증강하며 타국의 국력을 감소 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최대한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모든 국가에게 보편적이다.</p> <p>을: 국가 간 제약이 없이는 어떤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평화 연맹이라고 할 수 있다.</p> </div> <p>① 갑: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다. ② 갑: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 ③ 을: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으로 완성된다. ④ 을: 평화 연맹 가입국은 국제법의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⑤ 갑과 을: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p>
<p>갈통(갑), 칸트(을)의 평화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갈통과 칸트의 공통적 입장인 ㄹ 선지가 헛갈릴 수도 있지만, 각 사상가의 평화 실현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p>	<p>현실주의의 모겐소(갑)와 이상주의의 칸트(을)의 평화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당시 오답률 1위에 달했으며, 1번, 2번, 3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확실히 헛갈릴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p>

두 문제 모두 생각보다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다. 6평 10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9평 18번은 확실히 어려울 만한 지점이 있었다. 사실 평화관 관련 주제는 **칸트, 모겐소, 갈통** 사이에서만 출제될 확률이 높으므로, 9평 18번의 함정을 유의하며 준비하도록 하자.

[Beyond The Sense]

- 칸트 평화관의 논리 구조 -

전제: 국제 정치에서는 무정부 상태 속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개별 국가가 존재한다.

↓

상대 국가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

↓

각 주체(개인, 국가 등)의 노력으로 국가 간 신뢰를 정착해 영구 평화를 이루어야 함

[확정 조항]

01. 각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
0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 간의 평화 연맹에 기초
0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환대권)에 한정

[예비 조항]

평화 조약, 독립 국가, 내정 간섭 등에 대한 규약 제정

- 모건소 평화관의 논리 구조 -

전제: 국제 정치에서는 무정부 상태 속 이기적인 개별 국가들이 존재한다.

↓

힘의 충돌, 국익을 우선시하는 욕구로 분쟁이 발생

↓

세력 균형(조정, 타협 등)을 통해 전쟁을 예방
But 언젠가 깨질 수 있음

- 갈통 평화관의 논리 구조 -

전제: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직접적 폭력
(신체적, 물리적 폭력 ex. 전쟁)

간접적 폭력
(구조적, 문화적 폭력 ex. 억압, 착취)

↓

직접적 폭력 제거
→ 소극적 평화 달성

↓

간접적 폭력 제거 (ex. 정치 문화 개선)
→ 적극적(궁극적) 평화 달성

[E-Special]

ㄷ_168P_#2	
<p>직접적 폭력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폭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폭력을 재현하므로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구조적 폭력은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력을 의미하며 정치적, 억압적, 경제적, 착취적 폭력으로 다시 구분된다. 문화적 폭력은 종교와 사상, 언어, 법과 과학, 대중 매체와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갈통</p>	
<p>갈통의 평화관에 대한 제시문이다. 갈통의 폭력에 대한 입장 중 특히 문화적 폭력에 대해 잘 서술되어 있다.</p>	
ㅇ_110P_#8	
<p>갑: 시민적 체제는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신민으로서 만인의 유일한 공동의 법칙 수립에 대한 의존성의 원리에 의해, 그리고 국민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 확립된다. 이 유일한 체제는 공화적 체제이며, 이것은 근원적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p> <p>을: 폭력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가해지는 피할 수 없는 상해 행위로 간주된다. 평화는 직접적 평화와 구조적 평화. 그리고 문화적 평화가 합쳐진 것이다. 평화는 갈등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시험할 수 있으며, 갈등은 이를 창조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칸트), 을(갈통)</p>	
<p>칸트의 영구 평화론과 갈통의 평화관에 대한 제시문이다. 칸트에 대한 입장이 그동안의 칸트 제시문과 달리 상당히 낮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이를 유념하도록 하자.</p>	
ㅇ_133P_#6	
<p>정치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경시하고 과장해야 하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인간은 정치 과정에, 특히 국제 정치 분야에 더욱더 깊이 참여하게 된다. 정치의 본질과 정치적 무대에서의 자기 역할에 대해 자신을 속임으로써만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서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모겐소</p>	
<p>모겐소의 국제 정치에 대한 입장을 언급한 제시문이다. 역시나 그동안 현실주의적 입장을 언급한 제시문에 비해 낮설다. 확실히 '이기적인 국가'의 뉘앙스가 느껴진다면 모겐소임을 포착해야겠다.</p>	

| 제작 선지 리스트

칸트	영구 평화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무조건적 의무이다.	<input type="checkbox"/>
	보편적 우호 조건은 이방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킬 때 실현된다.	<input type="checkbox"/>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에게 국제법 승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겐소	평화적 외교 정책을 통해 국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국가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성공적인 세력 균형은 타 국가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방지해준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갈통	모든 폭력은 직접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으로 확장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는 폭력의 합법화를 평화의 합법화로 전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Day 5. 자연관

2025_06_#9 (정답률: 64%)	2025_09_#6 (정답률: 59%)
<p>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가)</p> <p>갑: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살아 있음 이상이 포함된다. 삶의 주체는 지각과 기억, 쾌고 감수성,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p> <p>을: 모든 유기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개별 유기체는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는 질서 정연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고유한 선을 지닌다.</p> <p>병: 비록 이성을 지니지 못했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ㄱ. A: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p> <p>ㄴ. B: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 학대 금지의 근거이다.</p> <p>ㄷ. C: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p> <p>ㄹ. D: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p>6.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대지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p> <p>을: 인간은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기 때문이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ㄱ.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p> <p>ㄴ.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p> <p>ㄷ.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다.</p> <p>ㄹ.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p>
<p>레건(갑), 테일러(을), 칸트(병)의 자연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밴다이어그램 문제이다. 전형적인 기출 패턴처럼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도덕적 권리 주체에 대한 포함 관계를 유의해야 했다.</p>	<p>레오폴드(갑)와 칸트(을)의 자연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특히하게도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하는 진술’을 고르는 문제로, 두 사상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지우면 답이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선지가 어느 사상가가 동의할 입장인지는 유념해야겠다.</p>

당연히 고난도 주제이다. 감히 예상하는데, 수능 때는 생윤의 가장 고난도로 나올 수 있는 주제이다. 해당 하는 사상가도 많고, 내용도 어려운데다가 문제가 꼬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Beyond The Sense]

- 칸트 자연관의 논리 구조 -

전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경향성과 함께 선의지와 이성을 지닌다.



동물 ≠ 이성적 존재
∴ 동물 ≠ 직접적 의무의 대상



인간의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는 인간성에 악영향
∴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 존재

- 싱어 자연관의 논리 구조 -	- 레건 자연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쾌고감수능력(= 감정)을 지닌 존재의 도덕적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전제: 삶의 주체(쾌고감수능력+@)의 도덕적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쾌락/고통에 대한 동등한 대우
(≠ 동일한 대우)



삶의 주체를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 X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싱어보다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가 작음)

- 테일러 자연관의 논리 구조 -	- 레오폴드 자연관의 논리 구조 -
전제: 목적론적 삶의 목표를 지닌 존재의 도덕적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전제: 대지 공동체 구성원의 도덕적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함



생태계 전체(=대지)의 아름다움 보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의무로 부과됨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함

[E-Special]

○_126P_#19
<p>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 애쓴다. 동식물의 선을 희생하여 인간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다.</p> <p>을: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동물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되는 것이다.</p> <p>병: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으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대지 피라미드는 유기적 구조를 이루는 집합이며, 인간은 대지 공동체에 속한 평범한 구성원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갑(테일러), 을(칸트), 병(레오폴드)</p>
9평 6번이 위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실제 문제에서는 칸트와 레오폴드의 입장이 언급되었다.)
ㄷ_79P_#2
<p>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동물을 키우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잠시 놀라며 “당신은 분명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하고 다시 물었다. 나는 고통과 비참함을 막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설령 어떤 존재가 우리 종의 구성원이 아닐지라도 그 존재에게 불필요한 고통이 가해져서는 안 되며, 동물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만약 동물이 착취당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동물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나는 동물을 애호(愛好)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꽤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이 독립적인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또한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라는 기본적인 도덕 원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종 구성원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_싱어</p>
싱어의 자연관에 대한 제시문이다. 매우 길지만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어 충분히 읽고 숙지해야 한다.
ㄹ_83P_#9
<p>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쾌락과 고통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 관심과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순간의 시간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타자와는 별개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_레건</p>
레건의 자연관에 대한 제시문이다. 역시 길지만 테일러의 입장이 선명히 드러나 있으니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 제작 선지 리스트

칸트	동물의 고통에 대한 반응은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인간 이외의 자연물을 단지 인간의 도덕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길 수 없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싱어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없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는 없다.	<input type="checkbox"/>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의 희생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레건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가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테일러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유기체 간 도덕적 책임이 존재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정적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레오폴드	생명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고려와 구성원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양립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칸트∩레건	인간은 동물 종(種)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직접적인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칸트∩테일러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는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한다.	<input type="checkbox"/>

Day 5. 해외 원조

2025_06_#12 (정답률: 66%)	2025_09_#19 (정답률: 55%)
<p>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p> <p>을: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ㄱ. 갑: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p> <p>ㄴ. 갑: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다.</p> <p>ㄷ. 을: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 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p> <p>ㄹ. 갑과 을: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p>	<p>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모두 부유하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이 모두 빈곤한 것은 아니다.</p> <p>을: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유보하여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죽게 방치하고 있다. 이는 살인과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결과가 나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요청한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ㄱ. 갑: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p> <p>ㄴ. 을: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 악인 것은 아니다.</p> <p>ㄷ. 을: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p> <p>ㄹ. 갑과 을: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p>싱어(갑)와 롤스(을)의 해외 원조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두 사상가의 해외 원조의 목적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오답 선지는 꽤 명확했다. 싱어와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기본 도식을 알고 있었다면 쉽게 풀었을 것이다.</p>	<p>롤스(갑)와 싱어(을)의 해외 원조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ㄱ 선지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으며, 실제로 27%가 ㄱ, ㄴ 선지를 선택했다. 당연하게도 이런 고난도 주제는 선지 자체를 꼼꼼히 봐야 하며, 특히 포함 관계와 전후 관계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p>

대망의 마지막 주제. 하지만 이 마저도 만만치 않다. 6/9평 모두 **롤스와 싱어**의 치밀한 비교와 꼼꼼한 선지 판단을 요구했으며 선지 또한 변별력이 높았다. 마지막까지 매우 치열하게 준비하도록 하자.

[Beyond The Sense]

- 롤스 해외 원조의 논리 구조 -

전제: 정의는 절차의 공정함이다.



정의로운 절차가 미비한 고통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외 원조 이행



But 공격적인 무법 사회는 원조에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조 대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다면 원조는 종료됨

- 싱어 해외 원조의 논리 구조 -

전제: 타인의 고통을 개선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도덕적 의무가 발생한다.



전 인류의 복지 향상, 절대 빈곤의 종식을 위해 해외 원조 이행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모든 인간의 이익 고려)



But 원조 주체의 경제력에 심각한 손해가 난다면
원조를 중단해야 함

[E-Special]

○_123P_#7

갑: 어떤 사회에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세계의 극빈자들을 도와야 한다. 절대적인 빈곤을 줄이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을 줄이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우선적인 일이다.

을: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통치된다면,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및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여건하에 살고 있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_갑(싱어), 을(롤스)

9평 19번이 위 제시문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E_171P_#3

갑: 최소 국가는 강압, 절도, 사기, 강제 계약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협소한 기능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정당화된 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다른 시민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국가가 강제적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을: 천연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도덕적 신념과 문화의 토대가 되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과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정연 해질 수 있다

_갑(롤스), 을(싱어)

특이하게 노직의 입장을 다룬 제시문이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롤스나 싱어와 달리 자선적 선택이라 보았다는 점을 기억하자.

| 제작 선지 리스트

룰스	국제 사회의 정의를 위해 국가 간 자원을 재분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원조의 의무는 대상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분배적 정의에서 비롯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심어	원조 대상은 반드시 빈곤 국가의 국민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외 원조는 인류의 공리 증진을 위해 요청되는 의무이다.	<input type="checkbox"/>
	해외 원조를 통해 세계 시민 의식을 실현시킬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다, 잘될 겁니다.